

■ 사진으로 보는 동네 소식



대연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인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인철) 등 각급 단체원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대연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상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도자) 등은 추석맞이 행복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대연4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영실)는 지난 9월 13일 마술쇼, 음악공연 등으로 구성된 '대연4랑 문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대연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순옥),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영웅) 등은 은누리상품권 180만원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대연6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단향) 등은 추석을 맞아 '사랑의 선물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용호1동 김주부 식당(대표 김동호, 전세미)는 매주 화요일 저소득 아동 가정 5세대에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후원한다.



용호3동 향토장학회(회장 고선화)는 지난 9월 18일 고등학생 8명에 총 400만원을 전달하는 '제22회 향토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용호4동 바르게살기운동 용호4동위원회(위원장 손재만)는 지난 9월 15일 추석명절을 맞아 경로당 8개소를 방문해 성품을 전달했다.

걸치레보다 본질에 집중한 남구의 '반세기 노포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중에 하나가 '맛의 기억'일 것이다. 외형과 걸치레보다 맛과 정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며 반세기 주민과 함께한 남구의 노포들을 소개한다.

내호냉면

1919년 함경도 함흥 내호리에서 냉면집을 시작해 6·25전쟁으로 피난 내려와 1953년 우암동에서 터를 잡은 글자 그대로 '백년가게'이다. 한국 밀면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다. 전쟁 이후 냉면의 주성분인 메밀을 구하기 어려워져 냉면을 즐겨 먹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국가로부터 배급받은 밀가루와 고구마 전분을 7대3 비율로 섞어 삼국수를 만든 게 밀면 탄생의 계기가 됐다. 내호냉



쌍희반점

감만동 쌍희반점은 진정한 맛집은 입자가 중요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곳이다. 중국 산동에서 부산으로 건너온 화교 출신이 1954년 이 자리에 중국집을 차렸다. 가게를 연지 일주일만에 아들이 태어나 가게 이름을 '두 가지 기쁨이 생겼다'는 의미로 쌍희(雙喜)로 지었다. 현재는 그때 아들이 대를 이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가수 김창렬이 사위여서 '김창렬 장인집'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배고프던 시절 가게를 연 탓에 넉넉한 양



과 착한 가격 그리고 손맛은 변치 않고 이어오고 있다.

궁중해물탕조씨집

'조씨집'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궁중해물탕조씨집은 1959년 못골시장에 문을 열었다. 매일 새벽 자갈치시장에서 손질하고 남은 생선의 내장을 모아 부산에서 최초로 생선내장탕을 판매했다. 남들이 잘 먹지 않은 생선 내장에 비법소스를 넣어 깔끔하고 깊은 풍미를 만들었다. 2008년 아들이 가게를 이어받은 뒤 생선 내장에 호불호가 있는 고객을 위해 부친의 비법소스에 7가지 해산물을 넣어 끓인 해물내장탕을 개발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코로나19 때 밀키트 시장에 진출해 해물내장탕을 바로 데워먹을 수 있는 해물내장탕, 생아구탕, 생선내장탕을 출시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할매 팔빙수단팔죽

명성만 들고 방문하면 외형에 실망할 수 있다. 데이블과 의사, 단출한 팔과 빙수는 프랜차이즈의 화려한 팔빙수와는 구별된다. 하지만 이는 4000원이란 착한 가격을 고수하고 팔빙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주인장의 의지 표현이다. 매장 안쪽 주방에는 팔빙수와 단팔죽의 심장인 단팔을 다루는 최신 설비가 위생적인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다. 1976년 용마상회로 가게를 처음 열어 얼음과 탁주, 떡볶이 등을 팔았다. 겨울 한철 봉어뽕을 팔았는데 팔알금이 맛있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팔빙수와 단팔죽 전문점으로 전향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용호동 가게는 본점이고 서면 롯데백화점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남구지역아동센터 어울림한마당



남구는 지난 12일 그랜드모먼트 유스 호텔에서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아동과 종사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1회 남구지역아동센터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 초등학교 치어리더팀 '슈팅스타'의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모범아동 및 종사자 시상과 장학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부산은행, 한국남부발전, 부산항만공사 등 기관과 지역 기업·단체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겐츠베이커리 정호연 대표는 간식을, 재성물류 김은정 대표는 현금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후원이 이어졌다.

온(溫, ON) 희망울타리 워크숍

남구는 지난 9월 9일 민·관 협력 통합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온(溫·ON) 희망울타리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례관리 전문성 제고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구와 동, 사회복지기관,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5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사례관리자가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자원의 실전 전략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고, 다양한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업무협약

남구장애인체육회와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1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구장애인체육회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장비를 지원하고,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은 대상자 모집과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돕고 지역 내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꿈드림 검정고시 98.8% 합격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남구꿈드림센터)는 소속 청소년들이 2025년도 상·하반기 검정고시에서 총 79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1회 검정고시에서는 42명(전체합격 39명, 부분합격 3명), 8월 제2회 검정고시에서는 37명(전체합격 33명, 부분합격 4명)이 합격해 올 한 해 전체 응시자 80명 중 79명이 합격, 98.8%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육아아빠단, 육아골든벨 개최



남구는 지난 9월 6일 '제2기 유엔남구 육아아빠단' 육아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빠들의 '함께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남구청 개청 50주년 기념 사행시 이벤트를 시작으로 육아 상식·정책 및 아이맞춤 문제로 구성된 골든벨 퀴즈, 함께육아 인식개선 캠페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결선에서는 최후의 1인에게 '육아의 신' 칭호와 커피머신이 수여됐으며, 우수자

9명에게도 다양한 상품이 전달됐다.

남구정리도깨비 주거환경 개선 봉사

(사)부산 남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지난 9월 4일 남구정리도깨비(회장 장현미)와 함께 문현1동의 한 기초수급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남구정리도깨비 회원 7명, 남구장애인복지관 소속 1급 정리수납 자격 학생 2명, 문현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센터 직원, 쓰레기운반을 지원한 구청 직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봉사로 1톤 트럭 2대 분량의 불용품이 정리되며 오래된 집은 새 숨결을 되찾았다. 남구정리도깨비는 2017년 창단 이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꾸준히 앞장서 왔으며, 올해는 부산시자원봉사센터 주관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걷기동아리 권역별 교육 실시



남구는 지난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걷기 동아리 회원 232명과 함께 동단위 걷기 동아리 '보보익선'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동별 걷기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우암, 용호, 대연·용당, 문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엔평화공원, 문현문화공원 등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은 ▲1530 건강 걷기 사업 안내 ▲권역별 걷기 코스 걷기 등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남구 걷기 동아

마을 소식

○용호2동 권재득 주민자치위원장, 천병철 방위협의회장 등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10kg 117포를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대연3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위원장 주연희)는 지난 9월 18일 위기가구 3세대를 방문해 6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대연4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영실)는 어르신 50세대를 대상으로 '정답은 선물 박스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용호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차홍래)는 울산 북구 강동동 주민자치회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문현1동 행정복지센터 및 자생단체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을 맞이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문현3동 부산한빛교회(담임목사 김희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라면 100박스를 문현3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